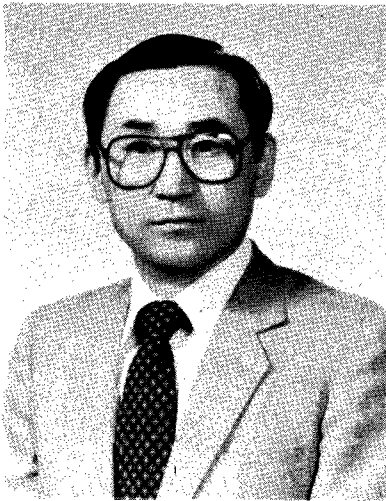


原子力産業의 進歩에



全 學濟 科學技術處長官 그리고 内外賓 여러분.

본인은 韓國原子力産業會議와 韓國原子力學會가 공동 주최하는 “原子力發電所 利用率 및 安全性 確保”에 관한 제 1 회 국제심포지움을 이곳 韓國에너지研究所에서 개최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全 研究所員을 대표하여 본인은 모든 참석자와 특히 외국의 참석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 입니다.

賦存資源이 없는 우리나라는 국가의 에너지 의존도, 특히 석유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安定된 에너지 資源 確保와 국민경제의 향상을 이룩하기 위해 原子力 技術開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우리나라에는 현재 4 개의 原子力發電所가 가동중이고, 5기가 건설중에 있습니다.

이들 原子力發電所에 소요되는 핵연료를 국산공급하기 위해 본 연구소는 1980년대초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核燃料 成形加工 技術開發에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습니다.

그 결과 1980년대말부터는 韓國의 모든 原子力發電所에 소요되는核燃料를 우리 기술로 공급할 수 있게 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.

하나의 礎石이

현재 입찰 평가단계에 있는 原子力 11,12號機는 우리 기술진의 최대 참가로 原電 技術自立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본 연구소는 최근 핵중기 공급계통(NSSS)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.

原子力의 安全性과 經濟性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 이 국제 심포지움은 여러 국가와 기관에서 오신 참석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意義를 갖고 있습니다.

꽃이 만발한 이 화창한 5월에 훌륭하고 창의적인 의견들로 이 심포지움이 활짝 꽃피 주기를 바라고, 나아가 이번 기회가 原子力産業의 진보에 하나의 石定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.

그리고 심포지움기간동안 本 研究所의 시설들을 둘러 보시고 아낌 없는 충고와 조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끝으로 자연온천과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이 유성지방에 머무시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歡迎辭에 대하고자 합니다.

대단히 감사합니다.

韓國에너지研究所 所長

韓 弼 淳